

보도시점 : 2023. 9. 25.(월) 11:00 이후(9. 26.(화) 조간) / 배포 : 2023. 9. 25.(월)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가는 길... 9월 27일부터 특별교통대책 시행

- 10월 3일까지 7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1일 평균 531만 대, 추석 전날(28일) 오전이 귀성 출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7일(수)부터 10월 3일(화)까지 7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가는 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 동안 총 4,022만 명(전년 대비 27% 증가), 1일 평균 575만 명(전년 대비 9.4% 감소)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31만 대(전년 대비 4.3% 감소)로 예상된다.
 - * 연휴기간 증가에 따른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평균 이동인원·고속도로 통행량은 전년대비 감소
-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9.28, 목)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날(9.30, 토)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동 시에는 대부분 승용차(92%)로 이동하고, 그 외 버스,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교통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마련하였다. (☞ 세부 내용은 참고파일 첨부)
- 추석 전·후 4일간(9.28~10.1)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책기간 동안 대중교통(버스, 철도, 항공, 해운) 운행을 늘리며(10,430회, 78만 2천석),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 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 총괄 >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재평 (044-201-3804)
		담당자	사무관	최효준 (044-201-3786)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구중 (044-201-3230)
		담당자	사무관	이일보 (044-201-3863)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성배 (044-201-3823)
		담당자	사무관	장상준 (044-201-3832)
	도로국 디지털도로팀	책임자	과 장	김상민 (044-201-4130)
		담당자	사무관	안정인 (044-201-4135)
	철도국 철도운영과	책임자	과 장	김민태 (044-201-3970)
		담당자	서기관	김병채 (044-201-4636)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홍락 (044-201-4204)
		담당자	사무관	박창일 (044-201-4184)
< 공동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책임자	과 장	도경식 (044-200-5730)
		담당자	사무관	이종훈 (044-200-5733)

